

美NTSB “조종사 집중 조사… 모든 가능성 검토”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아시아나機 충돌 직전 속도, 권장속도 보다 느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원인 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당국은 조종사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데버라 허스먼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조종사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종사들이 어떻게 사고기를 조종했고, 어떻게 훈련받았고 어떤 비행 경험을 지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크게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NTSB는 앞으로 사흘 정도 사고기를 조종한 이강국 기장과 이정민 부기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NTSB는 전날 브리핑에서 밝힌대로 착륙 직전 사고기가 정상적인 속도보다 느리게 활주로로 접근하고 있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조종사들은 충돌 82초 전에 고도 1600피트(4876m) 때 자동항법장치를 해제하고 수동 조종으로 전환했다. 충돌 16초 전 사고기의 속도는 시속 207.6km에 불과했다. 권장 속도 252.7km보다 한참 느렸다.

당시 엔진 출력은 50%에 그쳤으며 다시 출력을 높인 결과 충돌 당시 사고기의 속도는 시속 218km로 높아진 상태였다.

조종석 경보장치가 너무 낮은 속도 때문에 추력 상실을 경고하는 상황이었다.

NTSB는 통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착륙 당시 잘려나간 사고기 꼬리 부분은 바닷물 속 바위틈에서 발견됐다. 허스먼 위원장은 “조사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당국은 조만간 이를 인양해 정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종사가 자동착륙장치를 썼는지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이었는지 아니면 수동 조종을 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허스먼 위원장은 조종사 과실로 못 박는데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항공기 사고는 한가지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한다”고 말했다.

공항 구조와 확장 공사 등도 다 조사 대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조종사의 적은 비행 경험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종사가 기종을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며 전 세계 곳곳을 다니는 여객기 조종사는 처음 가보는 공항에 처음 착륙하는 일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허스먼 위원장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응급차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을 들었다면서 “공항 감시 카메라 녹화 테이프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승원 칼럼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을 달래면서 북한과 정상 회담을 가졌을 때 현대 정주영 회장이 황소 500 마리를 싣고 북한에 갈 때 나는 박수를 쳤다.

금강산 관광길이 터졌을 때 나는 가슴이 설렸다. 금강산 관광 붐이 일어났고, 늙은이들은 죽기 전에 금강산을 보고 죽어야 한다며 허위허위 다녀왔다. 십 년 전에 작고한 나의 친구 이문구도 그때 금강산을 다녀왔다고 자랑을 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금강산 관광길에 오르지 않았다. 동해의 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동해바다를 건너가서 금강산의 일부분을 둘러보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구차스러운 길이었으므로.

그 무렵에 나는 금강산이 개성공단과 함께 활짝 평화지역으로 열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선불리 판단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하는 남북정책으로 보아 금강산 관광길이 바다 아닌

너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했고, 금강산에서 한 여자가 사살되는 사건이 터졌고, 그의 정부는 금강산 길을 막아버렸고,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졌고, 이후 남북은 전쟁 직전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남북은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거듭했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나는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무서웠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는 굳게 닫혀 있는 남북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데 그 후보는 낙선했고, 내 희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요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미국과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것이 별로 없지 않는가.

나는 절망하고 그때 금강산에 가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여당은 나에게 더욱 절망적인 사건을 만들고 있다.

朴대통령 “원전비리 발본색원해야”

항공·원전 안전 등 9개 국정과제 ‘노란불’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국민적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원자력과 항공교통 안전 등 9개 과제에 ‘노란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진행상황에 따라 녹색(정상추진), 노란색(관심 필요), 빨간색(재검토 필요) 등 3가지 색깔로 표기하는 ‘신호등식’ 관리·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조실이 지난달부터 평가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31개 과제는 ‘녹색등’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원전 비리,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따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노란색 등이 켜졌다.

지난 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여파로 불안감이 커진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원전반대 고공 시위

9일 오후 부산 광안대교 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 위에서 그린피스 소속 활동가 4명이 공중 시위캠프를 치르고 “원전 사고시 비상계획구역을 원전에서 반경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상징적인 배 ‘메인보우 워리어3호’는 지난 5일 ‘원전 비상’(Nuclear Emergency)을 주제로 인천에 입항한 뒤 부산으로 항해 중이다.

전국 시도지사협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 중단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지자체장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취득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을 가져올 게 분명하다”며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취득세는 광역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취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고 최근에는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취득세는 광역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취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고 최근에는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포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 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회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희망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한우전문점 점장 모집

남평을 "솔향기맑은터" 한우전문점에서근무하실
용모단정한 점장을 모집합니다.

호텔경력자 또는 관리경력자 45세미만 남녀
연봉 3,000만원이상, 4대보험, 퇴직금, 월4회 휴무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 지참 면접
문의 010-7570-7525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 ▶두암동 5층 상가 건물 8.5억
- ▶지산동 5층 사무실 건물 16.5억
- ▶동천동 공장·청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임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창동 청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봉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10.1억 월 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포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외부동산개발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임차에서 영도, 동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동구 총창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윤남동 2층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75억 최저가35억5천만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69억9천만 최저가44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정동 2층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층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 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4억7천만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미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림리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재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순위는 정.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개간완료된 일야

국립근 울곡면 죽령리 관아역 동광주IC에서 15분거리 도로점입)25,700㎡ 매가1억9천, 개간완료 및 토질 좋음(과수원, 양초, 귀농 등 적합)

저렴한 전시판매장

주월동 상가 건물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560㎡ 매매가7억9천(가구, 전자, 자동차, 아웃도어 등)전시판매장 최적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